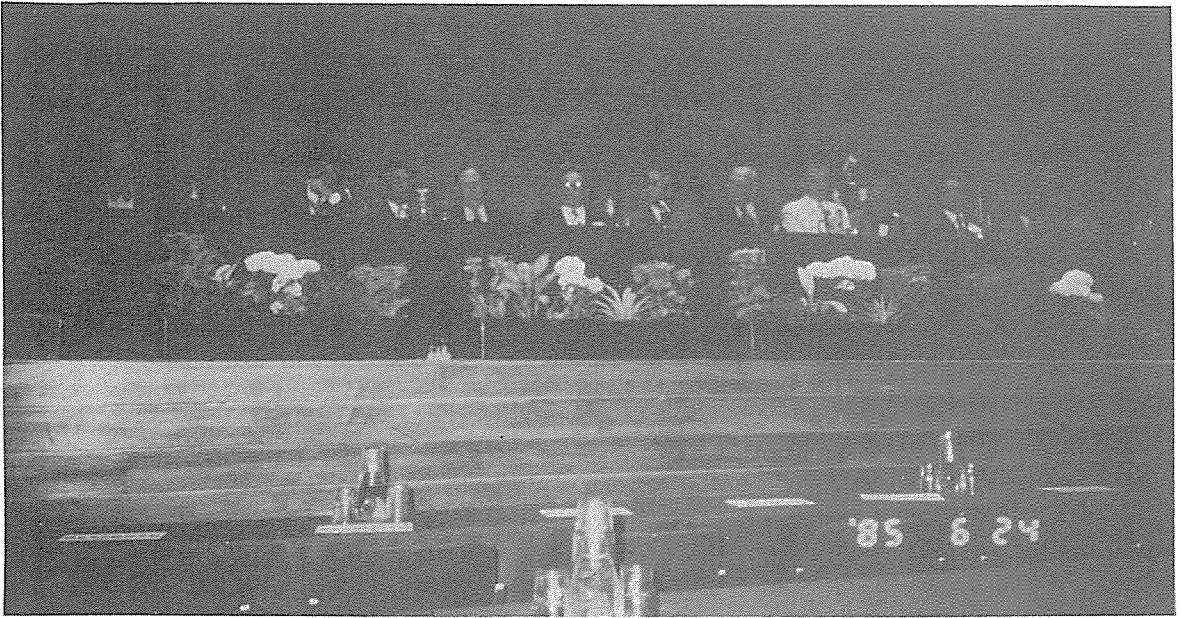


## 제 7 차 국제치과악안면방사선학회 총회



- 정밀한 촬영방법개발로 악관절질환 퇴치결의
- 朴兌源교수(서울대) 아세아지역 이사 피선



〈제 7 차 국제악안면방사선학회는 70여개국에서 400여 학자가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 韓國代表「骨硬化症에 關한 放射線學的 研究」發表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제 7 차 국제 악안면 방사선학회 총회 겸 학술대회가 70여개국에서 400여 악안면방사선학자가 참석, 보다 정밀한 촬영방법을 연구개발하여 악관절 질환을 퇴치, 악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해방시킬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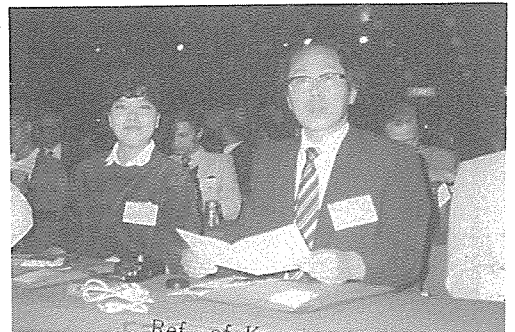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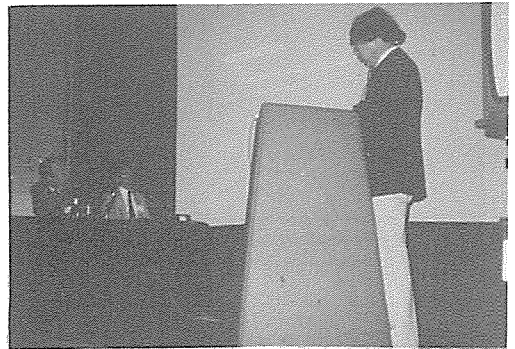
3 년마다 열리는 동학회에 서울대 朴兌源교수와 부산대 羅慶秀 전임강사가 참석했으며 동 학술대회 석상에서 朴兌源교수는「骨硬化症에 關한 放射線學的 研究」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동학회석상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朴兌源 교수〉

이번 학술대회는 악관절질환에 조기치료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연세가 150여편에 이르렀는데, 특히 악관절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치과방사선 치료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중 照影術에 關하여는 참가 회원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제치과악안면방사선학회 총회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물리치고 朴兌源교수가 亞細亞地域理事로 선임되는榮譽를 차지하기도 했다.

서울대 치대 교수인 朴兌源박사는 현재 공직치과의사회와 악안면방사선학회 총무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동 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도 있다.



〈동 학회에 참석하고 있는 朴兌源, 羅慶秀 교수〉